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의 아트페어 '함께 숨쉬기'가 오는 16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 청년 예술인 작품으로 예술 향기 전해요

##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 '함께 숨쉬기' 아트페어...16일까지 한전거래소

지역 내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리며 공존해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회장 김세진)와 KPX 한국전력거래소가 청년작가 판로 개척과 주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마련한 아트페어가 오는 16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함께 숨쉬기(Breath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회 소속 청년 작가 11명(강동호·강지향·김보배·김세진·나지수·노여운·박기태·이경은·이선우·임준형·정유승)을 비롯해 초대작가 박정용·박형오·심은석 총 14명 작가의 작품(조각 15점, 회화 112점, 공예 50점) 177점을 전시, 판매하는 장이다.

이번 아트페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주민들이 문화로 하나 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존 아트마켓의 대안적 형태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층 로비공간과 휴게공간을 활용, 작품을 전시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자연스럽게 구매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작품 또한 1,2호 소품부터 100호가 넘는 대작, 조각·설치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말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적합한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청년 작가들에게는 미술시장의 경험을, 대중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예술 작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수선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우리가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공존을 바라보는 14명 작가들의 시선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 담론을 만들어어나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진 회장은 "청년 예술인과 그들을 주목하는 안목있는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청년들이 지역 문화콘텐츠 창출을 주도하고, 또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젊은 문화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에 상응하는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는 다양한 장르의 청년 작가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미술시장에 알리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도모하는 공생플랫폼으로서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1. 강지향작 'Fullmoon'  
2. 김세진작 'Cactus City'  
3. 강동호작 'angel mine'



## ●광주문인협회 제35회 광주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 오소후 시조 이보영 수필 탁인석 수필 소묘란 아동 배다인

## 시 오소후, 시조 이보영

## 수필 탁인석·소묘란, 아동 배다인

광주문인협회는 2022년 제35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시 오소후, 시조 이보영, 수필 탁인석·소묘란 아동 배다인 씨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또한 2021년 겨울호부터 2022년 가을호까지 광주문학에 게재된 작품 중 최우수작을 뽑는 '올해의 작품상'에는 박연식(수필), 임린(시) 작가를 선정했다.

2022 광주문학상 심사위원은 전원범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최은정(수필), 박신영(소설), 탁현수(수필), 김용하(시), 전숙(시), 강산에늘봄찬치(시) 작가 등이 맡았다.

위원장을 맡은 전원범 시인은 "오소후 작가는 시적 상상력이 활발하고 사유가 깊으며 이보영은 서정성이 뛰어나고 서사적 압축이 돋보였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화의 배다인은 다채로운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의 공감을 얻어냈고 소묘란의 수필은 청학적 사고의 깊이가 있으며 독자에게 감동을 줬고 탁인석의 수필은 시대를 읽는 혜안이 뛰어난다"고 평했다.

광주문학상은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작가의 작품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창작지원금과 상장을 수여해왔다.

한편, 광주문인협회 제35회 광주문학상 시상식은 7일 광주여중 지하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역대 '광주문학상 수상자 전집'을 광주문학 연구 총서 시리즈 1 권으로 발간해 배부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 ACC, 아시아문화교육 중심으로 도약

## 11개국 18개 기관 문화 교육 사례 공유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의 문화교육 변화 사례를 공유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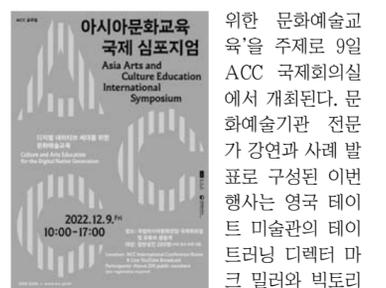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일까지 ACC 문화교육동 강의실에서 '2022 아시아문화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한다. 9일 ACC 국제회의실에서는 '2022 아시아문화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한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 18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육협력 기회를 다지는 자리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은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ACC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10개국 16개 문화예술기관 교육담당자가 참여한다.

7-8일 이틀간 심도 있는 발표 시간을 마련, ACC 포함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사례 공유와 토의가 예정됐다. 특히 발표 마지막 날에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의 교육책임자가 참여해 각 기관의 해외 우수 교육 사례를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공유한다.

'국제 심포지엄'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9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화예술기관 전문가 강연과 사례 발표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테이트 트러닝 디렉터 마크 밀러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 교육, 국가 프로그램 및 Young V&A 부장인 헬렌 차먼 박사가 문화예술기관 전문가로 강연한다.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한 홍콩 엠플러스 박물관을 비롯한 4개 아시아 문화예술기관은 디지털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을 펼친다.

'국제 심포지엄'은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9일 ACC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도 함께 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전담장은 "이번 '네트워크 워크숍'과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전문성까지 겸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김설아 작가가 들려주는 기억과 존재의 흔적

### 오늘 하정용미술관서 '작가와 대화'... '술한 산들이 흩어질 때'展 연계

청년작가 김설아(사진)와 함께하는 '작가와 대화'가 7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미술관에서 열린다.

하정용미술관은 우리 지역에서 독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작가 김설아의 '술한 산들이 흩어질 때' 전시 연계행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시 '술한 산들이 흩어질 때'에서는 기록되지 못한 기억과 존재들의 흔적을 복원해오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상설의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자신의 기억에서 씨실과 날실로 직조하듯 복원한 회화를 선보인다.

1부 '아홉 개의 검은 구멍'과 2부 '사자의 은



유'는 유영아 ACC 재단 문화유통팀 과장이 질의하고, 3부 '진동하는 고요'와 4부 '눈물, 그 건조한 풍경'은 이선영 미술평론가가 담당한다. 5부 '기억의 팔립프 세스트'는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장이 맡아 작가의 유학시기와 작품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